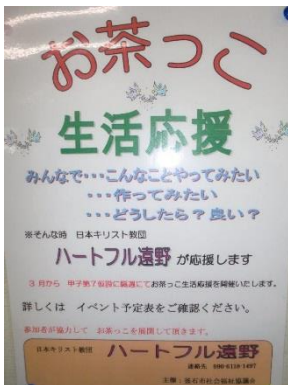




# 피해지 소식

2013년 8월

가톨릭에 살롱 「오챗코 살롱」이 가마이시 유세 목사



右 가마이시 노요제 2가톨릭

## 오챗코

~가사

2012년 2월부터 시작된 가마이시 시내의 가설주택에서의 「오챗코 살롱」은, 금년 6월로 1년 4개월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에는 4곳에서 시작했지만, 살롱개최에 대한 희망자가 많아 금년 2월에 7곳으로, 6월에는 9곳으로 증설되었습니다.

「3·11」발생 후 2년이 지나 사정에 의해 자원봉사활동을 종식시키는 상황에서 하트풀 도오노는 오히려 활동을 확대시켜왔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가설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제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협소한 공간에서 미래가 보이지 않는 생활을 영위하는 것이 큰 문제이지만, 육체적으로 병들고 정신적으로도 건강을 유지하기 힘든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상황에서 「오챗코」 활동은 소중한 이벤트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참가자수는 5월말 현재 총 3,727명입니다. 6월에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최자인 가마이시시 사회복지협의회의 활동에 협력하고 있는 10개의 단체 중에서, 매회 쉬지 않고 수공예와 만들기 교실을 운영하는 것은 하트풀 도오노 뿐입니다.

제 1차 부흥주택이 건설되고 사설주택으로부터 이주가 시작되었지만, 제 2차 완성은 1년후 입니다. 또한 부흥주택에서도 주민간 교류가 적어서 심신이 쇠약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서, 「오챗코 살롱」의 필요성이 검토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현실을 보란티아 활동을 통해서 널리 발신하고자 합니다.



下左 사사키씨의 설명을 듣고 있는 참가자

목표금 달성액  
(2013년 6월 17일 현재)  
565,475,951 엔

Donations can be sent to our account at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 (SWIFT:SMBC JP JT) Takadanobaba Branch(273) 2471703, for US dollars 3291280, for other currencies

(스텝: 사키무라)